

한·중 정상 기자회견 모두 연설

저와 후진타오 주석은 한·중 수교 이래 지난 11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양국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향후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우리 일행을 각별히 환대해주신 중국정부와 국민들께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서 양국관계 발전방향과 한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회담에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평소 존경해오던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서 서로간에 우의를 다지고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양국간 현안과 양국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데 대해 크게 감명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 초에 함께 출범한 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이런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회담 결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그 동안 기울여온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저와 후진타오 주석은 북핵 문제의 실질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당사자간에 대화가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저와 후진타오 주석은 한·중 수교 이래 지난 11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양국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향후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그 동안 발전돼온 양국관계를 토대로 해 교역과 투자를 더욱 균형 있게 확대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IT 등 첨단산업 발전, 그리고 중국의 서부 대개발사업에 협력하며 에너지 개발, 환경협력, 베이징 올림픽 지원 등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駐 청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민사·상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사관계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청소년 교류의 대폭 확대를 포함한 인적, 문화적 협력 등 양국간의 전면적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협력구상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과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양국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 갈 수 있다는 밝은 전망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양국정상간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증진시켜나가기 위해서 후진타오 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시도록 초청했으며, 후진타오 주석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오늘 회담이 유익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담을 준비해주신 후진타오 주석과 양국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